

독립논단

한국과 중국의 성별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단체참여 및 정치활동 비교 분석

박희봉 · 이희창 · 강제상 · 이창원 · 임명수 · 박광수 · 박병래

주제어 : 성별 네트워크, 사회자본 불평등, 사회단체참여, 정치활동

초 록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여성 중에서도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의 네트워크 형성에 차이가 있으며, 형성된 네트워크의 차이는 사회단체참여 및 정치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로부터 출발한다. 네트워크 역시 사회자본의 일종으로 형성과정이 다르게 되면 네트워크가 가져오는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Lin(2000)은 사회자본 불평등에 따른 결과의 불평등을 자본 결손과 보상 결손의 두 가지로 설명한다. 즉 사회자본 소유의 불평등은 다양한 투자 또는 기회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 자본부족을 겪게 되고, 동시에 주어진 자본의 질 또는 양이 다양한 사회집단 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보상 및 결과가 미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는 남성 사회자본과 다른 여성 사회자본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같은 여성이라고 해도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의 사회자본 형성과 결과가 차이가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사회자본이 인적자본과 물리적 생산 활동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남성과 여성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등에서의 불평등은 사회자본의 불평등에서 유발된 결과일 수 있다. 한편, 성별 사회자본 차이는 문화 및 체제에 의한 차이에서도 기인할 것이므로 본 연구는 전통적 여성관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과 문화혁명 이후 남녀평등을 완전히 달성했다고 보는 중국과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朴熙峯: 미국 Temple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1994)를 취득하고, 현재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임.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문화, 조직이론, 정부개혁 등이다. (hbpark@cau.ac.kr)

李羲昌: 한양대에서 행정학박사(1999)를 취득하고, 현재 경북대 행정과 조교수로 재직중임. 주요 관심분야는 복지행정, 산업정책, 지방행정 등이다. (hlee@kyungbok.ac.kr)

姜齊相: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1995)를 취득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임.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 인사, 정부혁신 등이다. (jskang@khu.ac.kr)

李昌遠: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에서 조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1991), 현재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임. 주요 관심 분야는 정부조직진단, 조직이론, 리더십 및 갈등관리 등이다. (chang717@hansung.ac.kr)

林明珠: 일본 동북대학에서 일본 근대문학을 전공하고, 현재 대전대학교 일본학과 전임강사로 재직중임. 주요 관심 분야는 일본 근·현대문학이다. (ims5409@hanmail.net)

朴光洙: 충남대에서 문학박사(1997)를 취득하고, 공주대학교에 출강중임. 주요 관심분야는 고전산문과 고전소설 등이다. (p3309@hitel.net)

朴炳來: 경북대에서 사회학박사(1992)를 취득하고, 경북대학교에 출강중임.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이론, 사상사 등이다. (pbrby@hanmail.net)

* 본 논문은 2005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5-BS0135)

I. 서론

사회자본 이론가들은 사회적 행동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관계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는다(Coleman, 1990). 집단, 조직, 사회에서의 개인 간의 관계가 그 집단, 조직, 사회 내에서 특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 발전시킬 것이라는데 연구초점을 두는 것이다. 특정한 집단, 조직, 사회에서 특정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출발점은 시공을 초월해 사회적 결속을 가져오는 혈연관계, 친근한 상황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종교 및 전통 등이다(Giddens, 1990: 102). 이것은 혈연 및 지연, 학연 중심의 일차적 신뢰가 시민사회의 이차적 신뢰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근대적 신뢰 및 네트신뢰가 서서히 보편적 신뢰 및 네트워크로 대체되는 것이다(Veenstra & Lomas, 1999: 4).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기초는 개인이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단체에 대한 참여 및 정치활동 역시 중요한 사회심리적 과정, 즉 개인의 주체성 단계 내에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의 주체성으로부터 기인한다(Veenstra & Lomas, 1999: 5).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 관점과 동시에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어떤 특정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자신이 참여할 집단을 선택하고 활동하게 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서로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가운데 상호간의 협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형성과정에서부터 차이가 있다고 인식되는 남녀 간 사회자본, 특히 이들의 네트워크 차이에 연구의 출발점을 둔다. 또한 남녀 간 네트워크 형성에 차이가 발생하듯이 전업주부와 직업여성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데에도 주목한다.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차이가 있다면 결과 역시 다를 것이라는 Lin(2000)의 주장을 받아들여, 네트워크 형성 수준에 따른 사회단체참여 및 정치활동이라는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불평등하다고 인식되는 여성 사회자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동안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여성 간 차이 즉,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의 네트워크 형성의 차이와 그 결과, 사회단체참여와 정치활동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려는 것이다.

한편, 사회자본의 형성과 결과는 그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다. 각각의 사

회는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발달 및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남녀의 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뚜렷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네트워크 차이에 기본적인 초점을 둔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고 사회를 지배하는 규범이나 관습, 조직문화 등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남녀간, 그리고 전업주부와 직장여성간 네트워크와 사회단체참여, 정치활동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질의 문화권이라 하더라도 양국이 경제발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양국인의 태도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차이는 한국이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는 국가이고, 중국은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체제의 차이에서 나오는 결과일 수도 있다. 또한 한국은 남녀평등에 관한 관심이 최근의 경향인 반면, 중국은 문화혁명 이후 남녀평등이 이룩된 국가라는 점에서 확연한 구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기존연구 및 논의

사회자본의 핵심적 명제 중의 하나는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생겨나는 규범, 상호호혜, 신뢰, 사회단체참여와 정치활동과 같은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를 활발히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인적 네트워크는 사회구성원 간의 협조적 행위를 가능하게 해 주고,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집단적 목표를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쉽게 협력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Segageldin & Grootaert, 2000: 45-46). 따라서 Putnam(1993)은 사회자본을 단체참여의 정도와 동일시한다. 그리고 단체참여로 인한 상부상조의 협동적 행위는 전체사회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성별 네트워크 형성과 그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사회단체참여 및 정치활동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논의해 본다.

1. 성별 네트워크 형성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로 Lin(2000)은 여성과

남성 간에 사회적 네트워크와 배태된 자원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자본 형성에 있어 가족관계를 보다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여성은 가족 및 친지와 관계에 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반면, 남성은 사회자본 형성에 있어서 보다 직장 동료에 연결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Fischer & Oliner, 1983; Wellman, 1985; Marsden, 1987)고 한다. Marsden(1987) 역시 여성은 남성보다 가족과 친척을 통한 사회자본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성은 친척이 아닌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주로 이용한다는 기본적인 차이를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Dominguez & Watkins(2003)의 연구와 같이 남성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가족과 친구들이 불리한 경우 상향적 사회이동을 위해 다른 네트워크를 보다 활발하게 이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같이 성 차별적 조직 및 네트워크 형성은 왜 남성과 여성이 사회에서 다른 계층제적 위치에 다르게 접근하는지를 설명한다. 특히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여성의 네트워크는 손해를 입게 되며, 여성은 배우자의 직업 이동에 따라서 직업을 바꾸기도 함으로써 여성이 사회자본 이용의 질과 양이 남성에 뒤지는 것이다(Marsden 1987, 1988).

한편 Putnam(1995)은 직장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가정 사회자본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Moore(1990) 역시 여성이 취업된 경우에도 가사일과 자녀양육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을 짐에 따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사회자본이 약화되는 것은 필연적임을 지적한다. 또한 가정에서 아동의 존재는 연결형성 특히 이웃이 아닌 가족 및 친지관계 외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제한한다는 점도 문제이다(Moore, 1990). 물론 결혼한 사람들은 미혼자들보다 가족 및 친지, 이웃과 보다 긴밀한 연력을 가지며, 이들 이외의 사람들과는 보다 협소한 연결을 맺게 된다(Fischer, 1982; Wellman, 1985)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국사회에서 직업여성의 70%가 미혼여성이라는 보고가 있다(이은주, 2005). 이것은 논리적으로 요즘 젊은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과, 미혼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직장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음을 반증한다. 사회자본과 관련된 논의로 직장여성과 전업주부는 다른 면을 보여준다. 즉 미국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미혼일 때는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결혼 후에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우수한 교육배경으로 예전에 전문성이 있는 직장에 근무했던 여성이 전업주부로 역할이 바뀌면

서 가정 내 사회자본 형성뿐 아니라 전통적인 미국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Skocpol & Florina, 1999). 문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더욱 많은 여성이 새로운 기회와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여성들에게 직업 및 가족에 대한 책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직장여성들이 시민의 자발적 활동을 계속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Hughes & Stone(2002)는 가족생활에서 발생한 변화가 어떻게 집단 멤버십 수준, 지역사회에서의 신뢰 및 상호관계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 생활의 수준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여성 사회자본의 역할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직업여성과 전업주부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네트워크 형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의 네트워크 형성의 차이는 또 다시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해당 연구대상 국가의 사회문화에 따라 성별 네트워크 형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문화적, 역사적 공통점과 차이가 있음에 따라 남녀 간 네트워크 형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한국과 중국에 대한 비교 연구는 네트워크의 성별 차이, 특히 그 동안 간과되어 온 여성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세대, 계층, 지역 등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개인이 성장하고 처한 환경의 차이에 따라 네트워크라는 사회자본의 양태와 특성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별 사회단체참여와 정치활동

Silvey(2003)는 네트워크를 비롯한 사회자본의 편익과 손실이 성에 의해 조직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여성이 남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보다 강력한 네트워크로부터 제외됨으로써 불평등한 사회자본의 형성 및 그 결과로 인해 여성의 단점을 확대시킬 수 있다(Neuhauser, 1995; Burt, 1998; Molyneaux, 2002; Smith, 2002)고 한다. Bebbington (2002) 역시 사회관계에 따른 사회자본의 보유에 따라 성 차별적 형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Molinas(1998)는 여성이 보다 상호관계를 존중하고 이타적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협력적인 행태를 보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제기

함으로써 여성의 참여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여성 특유의 사회자본 형성으로 다양한 조직 및 지역사회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논의는 성별 네트워크의 차이가 사회단체참여와 정치활동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거를 제공한다.

사회단체와 관련된 여성 사회자본 연구로 Putnam(1995)은 여성들이 많이 참가하는 다른 타입의 조직들로는 학교봉사모임, 스포츠모임, 직업단체, 문학단체 등이 있고, 전국여성단체연합이나 여성유권자 동맹 등과 같은 전통적인 여성단체들의 회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환경단체들과 여성운동단체는 7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반면, 남성은 스포츠클럽, 노조, 직업단체, 친목회, 재향군인회, 봉사단체 등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Booth(1972)는 여성이 남성보다 작은 규모의 조직에서 가입,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유형의 조직 활동을 한다고 보고했다. 즉 여성은 가정 업무에 초점을 둔 조직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성은 도구적이며 경제적인 목표를 가진 조직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

홍정우(2003)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단체활동은 ① 계모임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취미 및 문화 동호회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② 공식 조직보다는 사적으로 모이는 것을 선호하고, ③ 전통적인 연고집단의 결속력이 약화되는 한편 인터넷 동호회 참여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성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로 류현숙(2005)은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조직참여, 타인과 자신에 대한 신뢰, 네트워크 형성, 규범준수, 미래에 대한 희망, 낙천성, 탄력성, 비공식적 유대형성 등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전문지식 및 일반지식 보유 정도가 높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사회자본이 높다는 것은 여성이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리적 자본이 풍부하다는 것도 그만큼 개인 및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 여성 사회자본의 발전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성별 정치활동에 관한 연구로 박희봉 등(2005)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활동을 더 많이 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정치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들은 성별 정치활동이 동아시아 국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이유를 성별 역할에 대한 관습과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네트워크, 사회단체참여, 정치활동의 관계

네트워크를 비롯한 사회자본은 참여민주주의 및 지역사회 집착으로부터 조직의 지속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이르기까지 성과 및 만족 등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심을 둔다(Lin, Ensel & Vaughn, 1981; Coleman, 1988; Putnam, 1993; Burt, 1997). 개인이 어느 단체에 소속해 있는지가 정부에 대한 신뢰 및 정치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Mishler & Rose, 2001). Damico 등(2000)은 학교 및 지역사회참여 등의 초기 정치사회화 경험이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치활동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사회단체참여, 정부활동은 서로 깊이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편, Almond와 Verba(1963)는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정치적 사고, 사회적 믿음, 정치참여, 그리고 정치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이라고 했다. 시민조직에의 참여가 협동의 능력 뿐 아니라 집단적 행위를 위한 공유된 책임감을 터득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네트워크는 집단행동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을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을 민주주의 건설에 참여를 하도록 지휘하는 가교(gear)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Krishna, 1999). 따라서 사회네트워크는 전통적인 감각에서 정치참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Putnam, 1995).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단체생활이 높은 투표율, 공공이슈에 대한 인식 증가, 대의적 정부 신뢰 증가 등의 측면에 가시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Kaufman, 1999: 1301).

Tocqueville(1984) 이래 미국의 전통적인 학계에서는 사회단체가 정치적 무관심 및 국가에 대한 수동적인 의존 등의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반사적 역할을 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한다. 사회집단이 자발적 행위를 통해 지역사회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정부기관 또는 기업의 역할까지 담당 또는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Boix와 Posner(1998)는 사회자본이 결국 시민의 선거로 선출된 정책담당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성을 높은 수준에서 묻게 됨에 따라 전체 사회의 정치적 책임성을 증가시키고, 정부성과와 제도의 효과적인 작동을 촉진시킨다고 한다.

사회단체와 정치활동에 관한 관점으로 Stolle과 Rochen(1998)이 지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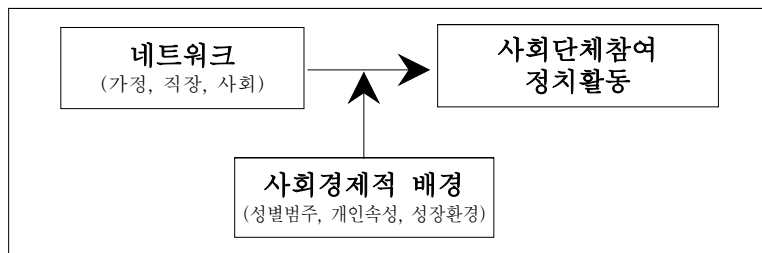
는 바와 같이 모든 유형의 단체가 정치활동에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다. 비정치적 조직에의 참여가 정치적 참여 및 관심을 자극한다는 전통적인 연구(Verba & Nie 1972; Verba, Schlozman & Brady 1995)가 있다. 단체의 공식 비공식적 활동 모두 정치적, 경제적 이슈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Ayala(2000)는 자발적 성향이 강한 비정부기관 내의 참여 성향이 직장에서의 비슷한 유형의 참여보다 정치참여에 관한 다양한 특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밖에 사회네트워크가 오히려 실질적 정치참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즉,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 내에서는 강한 유대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강한 유대가 오히려 그 집단이 아닌 사람들을 배제시킬 우려도 있다. 한편 Norris(1999)가 지적하듯이 사회자본이 필연적으로 정치적 자본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

III. 분석틀

1. 연구모형 및 가설

이상의 논의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여성에 있어서도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의 네트워크 형성이 다를 것이며, 다르게 형성된 사회네트워크는 다른 사회적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가정, 직장, 사회 내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성별 네트워크 차이가 사회단체참여 및 정치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과제를 도출하게 한다. 기본적인 연구과제는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이러한 연구모형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여성 중에서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의 네트워크 형성과정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와 가정과 직장, 사회의 네트워크가 사회단체참여 및 정치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경험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한국과 중국의 성별 네트워크 형성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남녀간 차이뿐 아니라 직장여성과 전업주부 간에도 국가간 네트워크 수준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성별 역할이 사회적으로 보다 구분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중국보다 성별 네트워크 차이가 확연히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한국과 중국의 성별 사회단체참여와 정치활동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중국보다 남녀 간, 전업주부와 직장여성 간 사회단체참여와 정치활동 차이가 확연하게 구분될 것이다.

가설 3: 한국과 중국의 가정, 직장, 사회에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사회단체참여 및 정치활동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네트워크 유형별 차이를 보일 것이다. 또한 사회단체참여가 정치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참여 유형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지닐 것이다. 성별 사회적 역할이 보다 구분되어 있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유형별 영향정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2. 변수 및 측정

성별, 그리고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의 네트워크와 사회단체참여, 정치활동에 관한 분석을 위한 본 연구의 변수는 기존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는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가정 네트워크, 직장 네트워크, 사회 네트워크로 구분하였다. 가정 네트워크는 형성과정의 차이에 따라 가족관계와 자녀교육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은 요인분석을 통해 동일요인으로 분류되는 변수를 각각 활용하였다. 변수구성에 이용된 가족관계는 부부간 대화 정도, 부부간 친밀감, 자녀와의 1일 평균 대화시간 등 3개이고, 자녀교육은 1일 평균 자녀학습지원 소비시간, 자

녀 공부·숙제 지도, 자녀와 학교문제 의견 교환, 자녀 TV시청시간 통제, 자녀 학교 선생님과 대화 등 5개를 포함하였다.

직장 네트워크 역시 형성과정의 차이에 따라 동료관계와 상사관계로 구분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되는 변수를 활용하였다. 변수구성에 이용된 동료관계는 직장동료와의 대화 정도, 직장동료와의 관계 만족도, 각종 문제 상의와 도움 등 3개이고, 상사관계는 직장상사와의 대화 정도, 직장상사와의 관계 만족도, 각종 문제 상의와 도움 등 3개를 포함하였다.

사회 네트워크는 학연관계, 사회동료관계, 이웃관계로 구분하였고, 각각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되는 변수를 활용하였다. 변수구성에 이용된 학연관계는 동문과 대화 정도, 동문관계 만족도, 각종 문제 상의와 도움 정도 등 3개이고, 사회동료관계는 사회동료 대화 정도, 사회동료 관계 만족도, 각종 문제 상의와 도움 정도 등 3개, 이웃관계는 주민과 대화 정도, 이웃주민관계 만족도, 각종 문제 상의 및 도움 받는 정도 등 3개를 포함하였다.

둘째, 사회단체참여는 참여단체의 특성 차이에 따라 연고모임과 비연고모임, 자녀교육모임으로 구분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를 활용하였다. 변수구성에 이용된 연고모임은 친목회,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 등 4개이고, 비연고모임은 봉사·서비스단체, 직능단체·협회·학회, 전국적 시민단체, 종교단체, 스포츠/취미관련 동호회 등 5개를 포함하였다. 또한 자녀교육모임은 자녀 학교운영 참여, 자녀 학교모임 및 학부모회 참여 등 2개다.

셋째, 정치활동은 활동의 지역범위를 고려하여 지역활동과 정치행위로 구분하였고, 역시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를 구분하였다. 변수구성에 이용된 지역활동에는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사와 지역문제 논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동 참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공식적 위원회 참여 등 3개, 정치행위에는 정치헌금, 정치기사 송고, 합법적 데모참여, 비합법적 데모 참여 등 4개를 포함하였다.

네트워크와 사회단체참여, 정치활동 영역의 각 항목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요인별 모두 동일요인으로 분류되었고, 분류된 각 변수별 요인들의 신뢰도 역시 신뢰계수 (Cronbach's α) 역시 0.5 이상으로 설문문항의 신뢰도는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료분류는 국가별 차이를 고려하여 한국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요인별 신뢰계수는 네트워크의 경우 가정영역의 가족관계 0.646, 자녀교육 0.758 등으로 나타났고, 직장영역의 직장동료 0.694, 직장상사 0.696, 사회영역의 학연관

계 0.810, 사회동료 0.737, 이웃주민 0.803, 종속변수 단체참여 영역의 연고 모임 0.680, 비연고모임 0.740, 자녀교육모임 0.584이었다. 정치활동 영역의 지역활동 0.884, 정치행위 0.892로 나타났다.

<표 1> 측정변수 및 측정항목

구분		측정항목		
네트워크	가정	가족관계	부부간 대화 정도, 부부간 친밀도, 자녀와의 1일 평균 대화시간 (5점 척도)	
		자녀교육	1일 평균 자녀학습지원 소비시간, 자녀 공부·숙제 지도, 자녀와 학교문제 의견 교환, 자녀 TV시청 시간 통제, 자녀 학교 선생님과 대화 (5점 척도)	
	직장	직장동료	동료와 대화정도, 동료관계 만족도, 각종 문제 상의와 도움 정도 (5점 척도)	
		직장상사	상사와 대화정도, 상사관계 만족도, 각종 문제 상의와 도움 정도 (5점 척도)	
	사회	학연관계	동문과 대화정도, 동문관계 만족도, 각종 문제 상의와 도움 정도 (5점 척도)	
		사회동료	사회동료 대화정도, 관계 만족도, 각종 문제 상의와 도움 정도 (5점 척도)	
	이웃주민	주민과 대화정도, 주민관계 만족도, 각종 문제 상의와 도움 받는 정도(5점 척도)		
사회단체 참여	연고모임	친목회(소모임, 계모임 등),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 (5점 척도)		
	비연고 모임	봉사·사회서비스단체, 직능단체·협회·학회, 전국적 시민단체(적십자, 경실련 등), 종교성을 띠고 있는 단체, 스포츠/취미관련 동호회 (5점 척도)		
	자녀교육 모임	자녀 학교운영 참여, 자녀 학교모임·학부모회 참여 (5점 척도)		
정치활동	지역활동	지역 영향력 인사와 지역문제 논의, 지역문제 해결 위한 주민공동체 활동 참여, 지역문제 해결 위한 각종 공식적 위원회 참여 (5점 척도)		
	정치행위	정치헌금, 정치관련 기사 송고, 합법적 데모 참여, 비합법적 데모 참여 (5점 척도)		
사회 경제적 배경	성별범주	직장남성, 직장여성, 전업주부		
		개인 속성	연령	출생년도
			학력	최종학력
			소득	월평균 소득
			종교	종교 유무
	성장환경	부모의 사회적 지위 (7점 척도)		
		거주지역의 주민생활 수준(5점 척도)		

한편, 통제변수로 이용할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성, 연령, 학력, 소득, 혼인여부, 종교, 성장지역, 부모의 사회적 지위 등 7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와 변수 측정을 위한 설문항목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3. 샘플링

본 연구의 설문을 위한 모집단은 20세 이상의 성인이다. 설문지역은 한국은 서울과 부산, 광주를 선정하였고, 중국은 수도 북경과 심양, 대련을 포함하였다. 중국의 경우 농촌거주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도시 위주의 샘플선정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농촌을 포함할 경우 양국을 비교할 대상지역 선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비교 대상을 도시로만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은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 중국은 200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은 기본적으로 Likert 5점 척도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교부는 선택된 도시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배부하였다. 연구의 특징 상 남성과 여성만을 구분하지 않고, 여성 사회자본과 태도는 직장여성과 전업주부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 직장남성과 직장여성, 전업주부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지역별, 성별 교부된 설문수와 회수된 설문수는 <표 2>와 같다.

<표 2> 지역별 설문교부 및 분석 내역

구분		교부 및 회수량			교부총량	회수총량	회수율(%)
		직장남성	직장여성	전업주부			
한국	서울	244/400	281/400	277/400	1,200	802	66.8
	부산	176/400	301/400	271/400	1,200	748	62.3
	광주	304/400	158/400	210/400	1,200	672	56.0
중국	북경	228/300	236/300	138/200	800	602	75.3
	심양	164/300	112/300	80/200	800	356	44.5
	대련	220/300	220/300	118/200	800	558	69.8
합 계		3,738/6,000					62.3

설문지 배포는 선정된 지역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의 가구에 1부씩 배부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¹⁾. 이것은 개인적 사고 또는 태도에 있어서 가족은 의사소통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조사에 대한 응답이 유사한 성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구를 단위로 1부씩 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Krishna, 2002)에 의거하였다.

1) 본 연구가 직장남성과 직장여성, 전업주부라는 일부 계층에 대해 조사한 까닭에 조사대상의 분포가 일반적인 인구학적 특성과 다소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즉 <표 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혼인상태에 있어 전업주부와의 비교를 위해 기존 직장여성과 기존 직장남성만을 조사했고, 연령에 있어서도 기존 연령층에 해당하는 30대 이상만을 조사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경우 학력분포에 있어 대졸이상의 비율이 4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표 3> 설문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구분		한국		중국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범주	직장여성	740	33.3	612	40.4
	직장남성	724	32.6	568	37.5
	전업주부	758	34.1	336	22.2
연령	30대	780	36.0	284	17.5
	40대	884	40.8	1,000	55.0
	50대 이상	503	23.2	440	25.5
학력	고졸미만	209	9.5	356	20.8
	고졸	1,030	46.8	404	23.6
	전문대졸	185	8.4	204	11.9
	대졸 이상	775	35.3	748	43.7
소득	저소득	611	27.9	308	17.8
	중소득	1,204	54.9	924	53.7
	고소득	379	17.3	488	28.5
혼인	정상가정	2,026	92.2	1,492	96.1
	이혼·사별 등	170	7.8	60	3.9
종교	종교 있음	1,610	73.3	284	16.5
	종교 없음	586	26.7	1,436	83.5

참고 : 소득은 양국 화폐단위 상이로 편의상 3단계로 제시함. 응답률을 기준으로 한국은 200-500만원, 중국은 1천-3천위안을 중소득으로 하여, 저소득과 고소득을 분류함.

IV. 분석 결과

1. 성별 네트워크 형성 수준

남성과 여성,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의 네트워크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남성과 전업주부, 직장여성을 분류하여 가정, 직장, 사회에서의 네트워크 수준을 한국인과 중국인을 비교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인의 가정에서의 네트워크는 가족관계와 자녀교육관계 모두 전업주부(가족관계 3.772, 자녀교육관계 3.392)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직장여성(가족관계 3.660, 자녀교육관계 3.248), 남성(가족관계 3.435, 자녀교육관계 2.937)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와 자녀교육관계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직장에서의 네트워크는 동료관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상사관계에 있어서 남성(3.084)이 여성(2.989)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에서의 네트워크는 학연관계와 사회동료관계에서 남성(학연관계 3.076, 사회동

료관계 2.970)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업주부(학연관계 2.912, 사회동료관계 2.775), 직장여성(학연관계 2.866, 사회동료관계 2.68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이웃관계에서의 네트워크는 전업주부(3.197)가 가장 높고, 직장남성(2.939), 직장여성(2.888)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중국인의 네트워크는 한국인과 유사하게 나타난 것도 있고, 차이

<표 4> 한국과 중국의 성별 네트워크 수준 비교

구분	집단	한국			중국			집단(I)	집단(J)	
		평균	F	평균차 (I-J)	평균	F	평균차 (I-J)			
가정	가족 관계	직장여성	3.660		.2242*	3.527		.6244	직장여성	직장남성
		직장남성	3.435	28.267***	-.1120*	3.465	32.417***	-.3299*	직장여성	전업주부
		전업주부	3.772		.3361*	3.857		.3924*	전업주부	직장남성
	자녀 교육	직장여성	3.248		.3106*	3.065		.4564	직장여성	직장남성
		직장남성	2.937	64.377***	-.1438*	3.019	.560	-.2512	직장여성	전업주부
		전업주부	3.392		.4545*	3.090		.0708	전업주부	직장남성
직장	동료 관계	직장여성	3.403	2.396	.0530	3.296		.3573*	직장여성	직장남성
		직장남성	3.350		-	2.938	86.667***	-	직장여성	전업주부
		전업주부	-	-	-	-		-	전업주부	직장남성
	상사 관계	직장여성	2.989	6.359*	-.0950*	2.919	25.488***	.2151*	직장여성	직장남성
		직장남성	3.084		-	2.704		-	직장여성	전업주부
		전업주부	-	-	-	-		-	전업주부	직장남성
사회	학연 관계	직장여성	2.866		-.2098*	3.074		.3464*	직장여성	직장남성
		직장남성	3.076	14.407***	.1639*	2.727	44.862***	.2606*	직장여성	전업주부
		전업주부	2.912		-.1639*	2.813		.0858	전업주부	직장남성
	사회 동료	직장여성	2.684		-.2851	2.601		.5638*	직장여성	직장남성
		직장남성	2.970	27.498***	-.0903	2.037	96.237***	.4545*	직장여성	전업주부
		전업주부	2.775		-.1948*	2.146		.1093	전업주부	직장남성
	이웃 주민	직장여성	2.888		-.0516	2.849		.5516*	직장여성	직장남성
		직장남성	2.939	29.927***	-.3098*	2.298	79.458***	.1870*	직장여성	전업주부
		전업주부	3.197		.2583*	2.662		.3647*	전업주부	직장남성

참고 1) 집단간 분산 동질성에 대한 Levene 통계치 검증결과 자녀교육(한국, 중국)은 동분산이 가정되지않아 Dunnett의 T3방식을 적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고, 그 외는 동분산이 가정되어 Scheffe 방식을 적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함. (***)p < .001, *p < .05)

2) 전업주부는 직장이 없는 관계로 직장 네트워크는 산출하지 않음.

도 나타났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의 가정에서의 네트워크는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전업주부(3.857)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직장여성(3.527), 남성(3.46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한편, 자녀교육관계에 있어서는 통계적 의미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장에서의 네트워크는 동료관계와 상사관계 모두 여성(동료관계 3.296, 상사관계 2.919)이 남성(동료관계 2.938, 상사관계 2.70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인 의미도 있었다. 사회에서의 네트워크는 학연관계와 사회동료관계, 이웃관계 모두에서 직장여성(학연관계 3.074, 사회동료관계 2.601, 이웃관계 2.84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업주부(학연관계 2.813, 사회동료관계 2.146, 이웃관계 2.662), 직장남성(학연관계 2.727, 사회동료관계 2.037, 이웃관계 2.29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가정에서의 네트워크는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같은 여성에 있어서는 전업주부가 직장여성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직장과 사회에서의 네트워크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직장에서의 네트워크는 한국인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중국인은 동료 및 상사관계 모두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에서의 네트워크는 한국인은 학연관계와 사회동료관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전업주부가 직장여성보다 높은 반면, 이웃관계에서는 전업주부가 가장 높고, 직장여성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장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이중 부담 때문에 사회네트워크를 형성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에 반해 중국인은 학연관계, 사회동료관계, 이웃관계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여성 간에는 직장여성도 전업주부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여성의 사회활동이 매우 높음을 간

<표 5> 한국과 중국의 성별 사회적 역할 비교

구분	측정항목(양성평등 인식)	한국			중국		
		여성(a)	남성(b)	a-b	여성(a)	남성(b)	a-b
가정	가정 내 부부간 결정권한 동등	4.03	3.71	0.32	3.75	3.74	0.01
직장	동일업무라면 성별 같은 급여	4.02	3.44	0.58	3.68	3.84	-0.26
사회	모든 면에서 성별 평등한 대접	4.09	3.86	0.23	3.36	3.28	0.08

참고 1) 직장여성과 직장남성을 비교대상으로 하고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는 제외함.
 2) 성별 사회적 역할은 5점 척도로 조사된 양성평등 인식으로 측정함. 양성평등 인식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차별감을 느낀다는 것이고, 이러한 차별감은 사회적 역할이 미흡함을 반영함.

접적으로 시사하는 측면이다.

한국과 중국의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성별 사회적 역할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표 5>에 제시된 성별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은 가정, 직장,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양성평등 인식이 높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역할 기회가 부족함을 나타낸다. 특히 직장 내 성별 양성평등 인식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한국에 비해 성별 양성평등 인식 차가 매우 작게 나타나며, 직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남성의 양성평등 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중국의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여건 면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체제차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은 성별 사회적 역할이 뚜렷하고,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도 남성 주도적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로 성별 사회적 역할에 별한 차이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차이에 따른 성별 역할 차이 결과가 <표 4>에 제시된 성별 네트워크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별 사회단체참여 및 정치활동

<표 6>은 남성과 여성,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의 사회단체참여 수준을 남성과 전업주부, 직장여성을 분류하여 비교한 것이다. 한국인의 사회단체참여에서 연고모임과 비연고모임은 모두 남성(연고모임 2.646, 비연고모임 2.57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여성 간에 큰 차이 없이 직장여성(연고모임 2.193, 비연고모임 1.527), 전업주부(연고모임 2.178, 비연고모임 1.641)로 나타났다. 연고모임과 비연고모임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자녀교육모임에 있어서는 전업주부(2.890)가 가장 높고, 직장여성(2.406), 남성(2.276)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정치활동 중에서 지역활동은 남성(2.057)이 가장 높고, 직장여성(1.869)과 전업주부(1.852)는 큰 차이 없었지만 통계적 의미가 있었다. 정치행위는 직장인(직장여성 1.776, 남성 1.772)이 전업주부(1.598)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편, 중국인의 사회단체참여 및 정치활동 수준은 한국인과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중국인의 사회단체참여에서 연고모임과 비연고모임은 모두 직장여성(연고모임 1.730, 비연고모임 1.836)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직장남성

<표 6> 한국과 중국의 성별 사회단체참여 및 정치활동 수준 비교

구분	집단	한국			중국			집단(I)	집단(J)	
		평균	F	평균차 (I-J)	평균	F	평균차 (I-J)			
단체 참여	연고 모임	직장여성	2.193		-.4522*	1.730		.1611*	직장여성	직장남성
		직장남성	2.646	50.079***	.0155	1.569	12.410***	.2955*	직장여성	전업주부
		전업주부	2.178		-.4677*	1.434		-.1344	전업주부	직장남성
	비연고 모임	직장여성	1.527		-1.044*	1.836		.2761*	직장여성	직장남성
		직장남성	2.572	166.89***	.1139	1.560	15.679***	.2520*	직장여성	전업주부
		전업주부	1.641		-.9303*	1.584		.0241	전업주부	직장남성
	자녀교육모임	직장여성	2.406		.1301	2.542		.1833*	직장여성	직장남성
		직장남성	2.276	52.237***	-.4845*	2.359	14.402***	.3111*	직장여성	전업주부
		전업주부	2.890		.6146*	2.231		-.1277	전업주부	직장남성
정치 활동	지역 활동	직장여성	1.869		-.1886*	2.339		.3845*	직장여성	직장남성
		직장남성	2.057	10.686***	-.0169	1.955	39.920***	.0581	직장여성	전업주부
		전업주부	1.852		-.2054*	2.281		.3264*	전업주부	직장남성
	정치 행위	직장여성	1.776		.0034	1.967		.1610*	직장여성	직장남성
		직장남성	1.772	11.647***	-.1774*	1.806	15.811***	-.0119	직장여성	전업주부
		전업주부	1.598		-.1740*	1.979		.1728*	전업주부	직장남성

참고 1) 집단간 분산 동질성에 대한 Levene 통계치 검증결과 지역활동(중국)은 동분산이 가정되지 않아 Dunnett의 T3방식을 적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고, 그 외는 동분산이 가정되어 Scheffe 방식을 적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함. (***)p < .001, *p < .05)

(연고모임 1.569, 비연고모임 1.560), 전업주부(연고모임 1.434, 비연고모임 1.584)로 나타났으며, 연고모임과 비연고모임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자녀교육모임에 있어서는 직장여성(2.542)이 가장 높고, 직장남성(2.359), 전업주부(2.232)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정치활동 중에서 지역활동은 직장여성(2.339)이 가장 높고, 전업주부(2.282)와 직장남성(1.955)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의미가 있었다. 정치행위는 전업주부(1.979)와 직장여성(1.967)의 수준이 비슷한 가운데 남성(1.806)이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사회단체참여와 정치활동에 있어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인의 사회단체참여에 있어서는 연고모임과 비연고모임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참여 수준이 높고, 여성 중에서 직장여성과 전업주부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교육모임에 있어서는 전업주부의 참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전업주부가 가정문제와 자녀문제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인은 연고모임, 비연고모임, 자녀교육모임 등 모든 사회단체참여에 있

어서 직장인의 참여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같은 직장인의 비교에서는 직장여성이 직장남성보다 사회단체참여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정치활동에 있어서는 한국인의 경우 남성의 정치활동이 높은 반면, 중국에서는 여성의 정치활동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7> 한국과 중국의 성별 정치조직 및 정당가입 수준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직장여성	직장남성	전업주부	직장여성	직장남성	전업주부	
전체	4.30	12.20	4.90	37.70	46.90	49.40	
학 력 별	고졸미만	8.97	53.33	0	17.24	22.58	33.33
	고졸	0.31	13.04	4.19	44.74	50.00	71.43
	전문대졸	11.76	9.09	0	23.53	50.00	35.71
	대졸이상	3.46	2.77	8.37	45.90	60.00	54.55

참고 : 제시된 수치는 학력별 정치조직 및 정당가입 비율을 나타낸 것임.

이러한 성별 사회단체 참여와 정치활동의 특성 역시 <표 5>에 제시된 한국과 중국의 체제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성별 정치조직 및 정당가입과 활동에 대한 사회적 차등이 없는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국은 정치조직 및 정당가입에 있어 성별 차이가 거의 없다. 한국은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 미만의 여성들이 정당가입 되어 있으나, 중국은 학력별 가입비율이 증가되면서 성별 구분 없이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중국 여성의 단체참여나 정치활동의 기본 틀이 한국 여성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적 역할 통로가 특정 분야 위주로 제한되어 있는 한국과 달리 중국 여성의 경우에는 정당가입이라는 기본적 네트워크 형성 채널을 통해 각종 사회활동이 보다 활발해 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6>의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3. 네트워크, 사회단체참여, 정치활동의 관계

<표 8>은 한국과 중국의 사회단체참여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네트워크 유형별 사회단체참여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네트워크를 독립변수로 하였고, 성별범주와 개인속성, 성장환경이 독립변수에 포함되었다.

한국에 있어서는 연고모임의 경우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32.9%이며, F값은 37.383으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가족관계, 직장상사관계, 학연관계, 사회동료관계, 이웃관계, 성, 연령, 학력, 주민생활수준 등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가족관계가 친밀하고, 직장상사관계가 좋으며, 학연관계와 사회동료관계가 친밀할수록, 이웃관계가 좋을수록, 직장남성이 직장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주민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연고모임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학력이 높을수록 연고모임 참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 네트워크와 사회단체참여의 인과관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한국			중국		
			연고모임	비연고모임	자녀교육모임	연고모임	비연고모임	자녀교육모임
네트워크	가정	가족관계	.067*	.001	-.016	.082*	.004	-.020
		자녀교육관계	.042	-.106***	.163***	-.019	.058*	.673***
	직장	직장동료관계	-.052	-.226	-.331**	.019	-.011	-.104***
		직장상사관계	.208*	.264*	.579***	.035	.288***	.056*
	사회	학연관계	.111**	-.333***	.075*	.083*	-.075*	-.013
		사회동료관계	.116**	.459***	.083*	-.021	-.003	.076*
	이웃관계	.125***	.115***	.121***	.248***	.118**	.000	
사회경제배경	성별범주	직장남성	.105***	.321***	-.169***	-.005	-.078*	-.066**
		전업주부	.073	.093	.335***	-.156***	-.135***	-.136***
	개인속성	연령	.269***	.226***	.078**	-.035	-.001	.023
		학력(최종학력)	-.103***	.200***	.073*	-.017	-.021	-.025
		소득(가족소득)	.057	.012	.101***	.024	.031	-.011
		종교(종교있음)	-.035	.032	.085***	.122***	.170***	.089***
	성장환경	부모사회지위	.000	-.156***	-.120***	-.052	.005	-.057*
		주민생활수준	.125***	.039	.251***	-.020	.095***	.065**
R ²		0.329	0.448	0.325	0.152	0.172	0.464	
F		37.383***	55.753***	39.098***	15.446***	18.086***	83.243***	

***p < .001, **p < .01, *p < .05.

비연고모임의 경우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44.8%이며, F값은 55.753으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자녀교육관계, 직장상사관계, 학연관계, 사회동료관계, 이웃관계, 성, 연령, 학력, 부모의 사회적 지위 등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직장상사관계가 좋으며, 사회동료관계가 친밀할수록, 이웃관계가 좋을수록, 직장남성이 직장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비연고모임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자녀교육관계와 학연관계가 친밀할수록,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비연고모임 참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교육모임의 경우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32.5%이며, F값은 39.098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자녀교육관계, 직장동료관계 및 직장상사관계, 학연관계, 사회동료관계, 이웃관계, 성, 연령, 학력, 소득, 종교, 부모의 사회적 지위, 지역주민 생활수준 등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자녀교육관계가 친밀하고, 직장상사관계가 좋으며, 학연관계가 좋고, 사회동료관계가 친밀할수록, 이웃관계가 좋을수록, 전업주부가 직장여성보다, 연령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지역주민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교육모임에 대한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직장동료관계가 좋을수록, 직장남성이 직장여성보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교육모임에 대한 참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국에 있어서는 연고모임의 경우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15.2%이며, F값은 15.446으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가족관계, 학연관계, 이웃관계, 성, 종교 등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가족관계가 친밀하고, 학연관계가 좋으며, 이웃관계가 친밀할수록, 전업주부가 직장여성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연고모임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연고모임의 경우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17.2%이며, F값은 18.086으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

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자녀교육 관계, 직장상사관계, 학연관계, 이웃관계, 성, 종교, 지역주민 생활수준 등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자녀교육관계가 친밀하며, 직장상사관계가 좋고, 이웃관계가 좋을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지역주민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비연고모임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학연관계가 친밀할수록, 직장남성과 전업주부가 직장여성보다 비연고모임 참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교육모임의 경우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46.4%이며, F값은 83.43으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자녀교육 관계, 직장동료관계 및 직장상사관계, 사회동료관계, 성, 종교, 부모의 사회적 지위, 지역주민 생활수준 등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자녀교육관계가 친밀하고, 직장상사관계가 좋으며, 사회동료관계가 친밀할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지역주민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교육모임에 대한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직장동료관계가 좋을수록, 직장남성과 전업주부가 직장여성보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교육모임에 대한 참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본 연구의 가설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인과 중국인의 네트워크가 사회단체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 및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가정에서의 가족관계 네트워크는 한국과 중국 모두 연고모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녀교육관계는 자녀교육모임에 한국과 중국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연고모임에 대한 영향은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국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직장에서의 직장동료관계는 자녀교육모임에 한국과 중국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장상사관계는 한국과 중국 모두 각종 모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사회에서의 학연관계는 한국과 중국 모두 연고모임과 자녀교육모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연고모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사회동료관계와 이웃관계는 한국과 중국 모두 각종 단체참여에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표 9>는 한국과 중국의 정치활동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어떤 네트워크와 사회단체참여가 정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네트워크와 사회단체참여를 독립변수로 하였고 통제를 위해 사회경제적 배경이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한국의 지역활동의 경우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37.4%이며, F값은 32.176으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가족관계, 자녀교육관계, 직장동료관계, 학연관계, 사회동료관계, 연고모임, 비연고모임, 자녀학교모임, 성, 연령, 종교, 부모의 사회적 지위 등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직장동료관계가 좋으며, 사회동료관계가 친밀할수록, 연고모임과 비연고모임 및 자녀학교모임에 대한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전업주부가 직장여성보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지역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가족관계와 자녀교육관계가 친밀할수록, 학연관계가 좋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지역활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네트워크, 사회단체참여와 정치활동의 인과관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한국		중국	
			지역활동	정치행위	지역활동	정치행위
네트워크	가정	가족관계	-.157***	-.026	-.113***	-.122***
		자녀교육관계	-.107***	-.083*	.038	.061
	직장	직장동료관계	.344**	.039	-.015	-.105*
		직장상사관계	.145	.135	.198***	.224***
	사회	학연관계	-.161***	-.099*	.061	.042
		사회동료관계	.178***	.096	-.035	-.079
	이웃관계	-.005	-.049	.211***	.020	
단체참여	연고모임	.159***	.099*	-.078*	.018	
	비연고모임	.242***	.283***	.190***	-.040	
	자녀학교모임	.154***	.119**	.094**	.158***	
사회범주	성별	직장남성	.044	-.004	-.215***	-.149***
	전업주부	.428***	.053	-.045	.004	
개인속성	연령	연령	-.098***	-.072*	.130***	-.002
		학력(최종학력)	.003	.149***	-.080**	-.023
	소득(가족소득)	.020	-.052	.077*	.068	
	종교(종교있음)	-.059*	-.129***	-.045	-.068*	
	성장환경	부모사회지위	.115***	.107**	.092**	.033
	주민생활수준	.046	-.106***	.006	.008	
		R ²	0.374	0.233	0.284	0.095
		F	32.176***	16.102***	26.521***	7.028***

***p < .001, **p < .01, *p < .05.

한국의 정치행위의 경우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23.3%이며, F값은 16.102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자녀교육관계, 학연관계, 연고모임, 비연고모임, 자녀학교모임, 연령, 학력, 종교, 부모의 사회적 지위, 지역주민 생활수준 등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연고모임과 비연고모임 및 자녀학교모임에 대한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치행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자녀교육관계가 친밀할수록, 학연관계가 좋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지역주민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정치행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지역활동의 경우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28.4%이며, F값은 26.521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가족관계, 직장상사관계, 이웃관계, 연고모임, 비연고모임, 자녀학교모임, 성, 연령, 소득, 부모의 사회적 지위 등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직장상사관계가 좋으며, 이웃관계가 친밀할수록, 비연고모임 및 자녀학교모임에 대한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고 가족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지역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가족관계가 친밀할수록, 학연관계가 좋을수록, 연고모임의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직장남성이 직장여성보다 지역활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정치행위의 경우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9.5%이며, F값은 7.028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가족관계, 직장동료 및 상사관계, 자녀학교모임, 성, 종교 등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직장상사관계가 친밀할수록, 자녀학교모임에 대한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행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가족관계가 친밀할수록, 직장동료관계가 좋을수록, 직장남성이 직장여성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정치행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본 연구의 가설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인과 중국인의 네트

워크가 정치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 및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가정에서의 가족관계 네트워크는 한국과 중국 모두 지역활동 및 정치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교육 관계는 한국에서는 지역활동 및 정치행위 등 정치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국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둘째, 직장에서의 직장동료관계는 한국에서는 지역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국에서는 정치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장상사관계는 한국에서는 정치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정치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사회에서의 학연관계는 한국에서 정치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사회동료관계는 한국에서만 지역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웃관계는 중국에서만 지역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사회단체참여가 한국과 중국에서 정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연고모임은 한국에서는 지역활동 및 정치행위 등 정치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국에서는 연고모임이 지역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연고모임과 자녀학교모임은 한국과 중국 모두 정치활동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

V. 논의 및 결론

오늘날 정치·경제·사회활동에서 여성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국의 경우도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됨에 따라 공사 부문을 막론하고 여성이 조직의 독립적 인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제약과 한계는 여전하다. 조직생활에서 성차별이 상존하고, 가정에서는 여성이 가사와 양육 의무를 함께 지고 있다(Acker, 1990; Staudt, 1990). 이런 연유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미 70년대부터 성차별금지, 기회균등 등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서구의 정부조직과 기업들은 여성들이 자기발전과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제공하려는 가정 친화적 정책을 개발·시행해 오고 있다

(Doome-Huiskes, 1999). 우리나라도 여성부 출범 이후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은 양성평등에 있어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간관계 형성을 통한 연계(Bourdieu, 1986)가 각종 사회·조직 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자본 차이를 시정하는 데에는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관계를 통해 형성·유지되는 사회자본이 결국 인적 네트워크를 촉진하게 되어 물리적 자원과 권력을 창출함으로써 인간관계가 열등한 여성이 사회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양성 불평등의 기원이 사회적 편견과 문화적 전통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의 형성에 기인할 수 있다는 가설로 논의를 출발하였다. 여성은 남성과 다른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자본이 다르게 형성되어 결과 역시 차이를 보인다는 해외 연구자들의 이론을 한국 상황에서 검증해 보았다. 같은 논리로 전업주부와 직장여성 간에도 인적 네트워크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과 여성의 인적 네트워크가 한국과 중국에서 달리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가정에서의 네트워크는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직장에서의 네트워크는 한국인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중국인은 동료 및 상사관계 모두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높았다. 사회에서의 네트워크는 한국인은 학연관계와 사회동료관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자본이 높게 형성된다는 서구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Lin, 2000; Moore, 1990; Fischer & Olicker, 1983; Wellman, 1985; Marsden, 1987; Dominguez & Watkins, 2003; Hanson & Pratt, 1991; Green et. al., 1995; Marx & Leicht, 1992; Straits, 1998). 이에 반해 중국인은 학연관계, 사회동료관계, 이웃관계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일반적으로 남녀차별이 해소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중국에서는 여성의 인적 네트워크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양성평등정책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전업주부와 직장여성 간에도 인적 네트워크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 역시 한국과 중국에서 다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가정에서의 네트워크는 한국과 중국 모두 전업주부가 직장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연관계, 사회동료관계, 이웃관계 등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한국은 전업주부가 모든

면에서 직장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장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이중 부담 때문에 사회네트워크를 형성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에 반해 중국인은 학연관계, 사회동료관계, 이웃관계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여성 간에는 직장여성이 전업주부보다 높았다. 이 결과는 한국의 여성, 특히 직장여성의 인적 네트워크가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고, 중국 여성의 인적 네트워크는 매우 잘 정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결과로 남성과 여성의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의 인적 네트워크가 상이하고,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의 인적 네트워크가 한국과 중국에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 1을 받아들일 수 있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사회단체활동과 정치활동에 차이가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회단체참여에 있어 한국인은 연고모임과 비연고모임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참여 수준이 높았으나, 자녀교육모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특히 전업주부의 참여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인의 경우에는 연고모임, 비연고모임, 자녀교육모임 등 모든 사회단체참여에 있어서 직장여성의 참여 수준이 가장 높고 가정주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치활동 참여는 한국인의 경우 남성이 높은 반면, 중국인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과 중국인 간에 성별 사회단체참여 및 정치활동 수준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국의 가정주부는 중국과는 달리 가정 내 역할이 매우 뚜렷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아동 행태문제 연구를 통해 가정주부가 아동교육 등 가정문제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는 Parcel과 Menaghan(1993)의 연구와 일치되는 부분이다. 이 결과로 한국과 중국의 성별 사회단체참여와 정치활동이 상이하고,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남녀 간, 전업주부와 직장여성 간 사회단체참여와 정치활동 차이가 확연하게 구분될 것이라는 가설 2는 일단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성별 사회단체참여와 정치활동이 중국에 비해 확연히 구분될 것이라는 가설의 뒷부분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중국여성이 남성보다 사회단체참여와 정치활동이 높은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사회문화와 체제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성별 사회단체참여와 정치활동을 보이는 것으로 가설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한국과 중국에서 각종 인적 네트워크가 사회단체참여와 정치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네트워크 유형별 차이가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우선

여성의 네트워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정 내 가족관계와 자녀교육관계에 있어 한국은 동질적 성향의 연고모임이나 자녀교육에는 정(+), 이질적 성향을 지닌 비연고모임에는 부(-)의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질적 성향의 정치활동에도 부(-)의 영향으로 이어지는 일관성을 보였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남성의 네트워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직장상사 관계와 사회동료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은 각종 사회단체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정치활동에도 정(+),의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나 중국은 그렇지 않고 정(+),과 부(-),가 혼합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정치활동에 대한 사회단체참여의 영향 역시 한국은 단체참여 수준에 따라 정치활동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었으나 중국은 그렇지 못하고 일정한 패턴 없이 변화되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의 네트워크 구조나 사회단체참여 및 정치활동의 유형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성별 사회적 역할이 보다 뚜렷함을 제시함과 동시에 여성의 사회참여가 중국보다 미흡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과 중국의 가정, 직장, 사회에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사회단체참여 및 정치활동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네트워크 유형별 상이하고, 사회단체참여가 정치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참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가설 3은 일단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성별 네트워크에 따른 사회단체참여와 정치활동의 유형을 알 수 있고, 중국의 경우는 일정한 패턴을 찾기 어렵다고 해서 한국이 중국에 비해 유형별 영향정도가 뚜렷하다고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중국에서도 성별 사회단체참여 및 정치활동의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여성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남성 사회자본과 다르게 형성되고, 여성 중에서도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의 인적 네트워크가 다르게 형성될 것이며, 상이한 네트워크는 사회단체참여 및 정치활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찾아냈다. 남성과 여성, 전업주부와 직장여성 간의 사회자본이 다르다는 타 연구자의 기존 연구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라는 상이한 체제 하의 다양한 특성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의 종류에 따라 사회단체참여 및 정치활동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발견하였다는데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서 특정한 인적 네트워크가 왜 한국 또는 중국에서 특정한 사회단체참여 및 정치활동

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보다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 전업주부와 직장여성 간의 네트워크 차이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사회생활 등에서 차이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남녀불평등의 기원이 인적자본의 차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보다 강력한 네트워크로부터 제외됨으로써 성 불평등의 범위 내에 있는 사회자본이 여성의 단점을 확대시킬 수 있다(Neuhauser, 1995; Burt, 1998; World Bank, 2001; Smith, 2002)는 여성사회자본 연구자들의 주장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즉 사회적 불평등이 적은 규모와 다양하지 못한 네트워크, 여성 위주의 닫힌 네트워크, 계층적으로 낮은 사람들과의 연결 등 불리한 자원에 의해 재생산되는 경향에 의거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양성평등을 위해서 인적자본 증진에 초점을 두어 연구되던 접근을 사회자본의 불평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 보다 관심을 갖을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남녀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취업 및 임금격차 등의 인적, 물적 평등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자본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희봉 · 이희창 · 김종래 · 유재원 · 한인희 · 차일근 · 김철수 · 박병래.
(2005).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한·중·일 3국 수도권 주민의 의식조사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9(4): 547-575.
- 류현숙. (2005). 여성의 내적·사회적·심리적 자본에 관한 실증연구. 대전대 박사학위논문.
- 이은주. 결혼과정을 통한 남녀관계의 재생산과 강화: 한국의 예. 인터넷 자료.
- 이정선. (2001a).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관계: 콜맨의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4(2): 147-181.
- 이정선. (2001b). 초등학교에 있어서 학업성공과 사회자본의 관계: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4(3): 253-288.
- 한덕웅 · 김금미. (2004). 성별에 따른 한국문화 인식과 공동사회 가치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23-42.
- 홍정우. (2003). 한국사회의 가치관 급변과 혼돈. 삼성경제연구소.
- Almond, Gabriel A. & Verba, Sidney.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mato, P. R. & Booth, A. (1997). *A Generation at Risk: Growing Up in an Era of Family Upheava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Anderberg, Dan & Balestrino, Alessandro. (2003). Self-enforcing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the Provision of Education. *Economica*, 70: 55-71.
- Ayala, Louis J. (2000). Trained for Democracy: The Differing Effects of Voluntary and Involuntary Organizations on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Research*, 53(1): 99-115.
- Bebbington, A. (2002). Sharp knives and blunt instruments: social capital in development studies. *Antipode*, 34(4): 800-803.
- Beggs, John J. & Hurlbert Jeanne S. (1997). *The Social Context of Men's and Women's Job Search Ties: Voluntary Organization Memberships, Social Resources, and Job Search Outcomes*.

- Sociological Perspectives 40(4): 601-22.
- Boix, Carles and Daniel N. Posner. (1998). Social Capital: Explaining Its Origins and Effects on Government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4): 686-693.
- Booth, John A. & Richard, Patricia Bayer. (1998). Civil Society and Political Context in Central Americ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1): 33-46.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Brass, Daniel J. (1985). Men's and Women's Networks: A Study of Interaction Patterns and Influence in an Organization.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8(2): 327-43
- Bubolz, Margaret M. (2001). Family as source, user, and builder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Socio-Economics*, 30: 129-131.
- Burt, Ronald S. (1998). The Gender of Social Capital. *Rationality and Society* 10(1): 5-46.
- Coleman, James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England: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Damico, Alfonso J., M. Margaret Conway, Sandra Bowman Damico. (2000). Patterns of Political Trust and Mistrust: Three moments in the lives of democratic citizens. *Polity* 32(3): 377-400.
- Dominguez, Silvia & Watkins, Celeste. (2003). Creating Networks for Survival and Mobility: Social Capital Among African-American and Latin-American Low-Income Mothers. *Social Problems* 50(1): 111-135.
- Fischer, Claude & Oliner, Stacey. (1983). A Research Note on Friendship, Gender, and the Life Cycle. *Social Forces* 62: 124-132.
-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 of Modernity*. Stanford: Stanford

- University Press.
- Green, Gary P. Tigges, Leann M. & Browne, Irene. (1995). Social Resources, Job Search, and Poverty in Atlanta. *Research in Community Sociology* 5: 161-82.
- Hanson, Susan & Pratt, Geraldine. (1991). Job Search and the Occupational Segregation of Wome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1: 229-53.
- Hughes, Judy & Stone, Wendy. (2002). Families, Social Capital and Citizenship Project. Fieldwork Report.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 Kaufman, Jason. (1999). Three Views of Associationalism in 19th-Century American: An Empirical Examin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4(5): 1296-1345.
- Krishna, Anrudh & Elizabeth Shrader. (1999). Social Capital Assessment Tool. Prepared for the Conference on Social Capital and Poverty Reduction. The World Bank.
- Lin, Nan. (2000). Inequality in Social Capital. *Contemporary Sociology* 29(6): 785-795.
- Lin, Nan, Ensel, Walter M. & Vaughn, John G. (1981). Social Resources and strength of ties: structural factors in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393-405.
- Marsden, Peter V. (1987). Core Discussion Networks of America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1): 122-131.
- Marx, Jonathan & Kevin T. Leicht. (1992). Formality of Recruitment to 229 Jobs: Variations by Race, Sex and Job Characteristics.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76: 190-96.
- Mishler, William & Richard Rose. (2001). What are the Origins of Political Trust? Testing Institutional and Cultural Theories in Post-Communist Societ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4(1): 30-62.
- Molinas, Jose R. (1998). The Impact of Inequality, Gender, External Assistance and Social Capital on Local-Level Cooperation.

- World Development 26(3): 413-431.
- Molyneux, M. (2002). Gender and the silences of social capital. *Development and Change* 33(2): 167-188.
- Moore, Gwen. (1990). Structural Determinant of Men's and Women's Personal Net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5): 726-735.
- Munch, Allison, McPherson, Miller & Smith-Lovin Lynn. (1997). Gender, Children, and Social Contact: The Effects of Childrearing for Men and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4): 509-520.
- Neuhouser, K. (1995). Worse than men: gendered mobilization in urban squatter settlements, 1971-91. *Gender and Society* 9(1): 38-59.
- Norris, Pippa. (1999).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rcel, T. L. & Menaghan, E. G. (1993). Family social capital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6(2): 120-135.
- Portes, Alejandro.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_____.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No. 1, 65-78.
- _____.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 Serageldin, Ismail & Grootaert, Christriaann. (2000). Defin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ing View. Partha Dasgupta & Ismail Seragedin, 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40-58.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Silvey, Rachel. (2003). Engendering Social Capital: Women Workers and Rural-Urban Networks in Indonesia's Crisis. *World Development* 31(5): 865-879.

- Skocpol, Theda & Morris P. Florina. (1999). Making Sense of Civic Engagement Debate. in Theda Skocpol & Morris P. Florina.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Smith, A. (2000). Mobilizing social resources: race,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capital and persisting wage inequalities. *The Sociological Quarterly* 41(4): 509-537.
- Stolle, Dietlind & Thomas R. Rochen. (1998). Are all Associations alike?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1): 47-65.
- Straits, B.C. (1998).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The Role of Personal T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2: 191-207.
- Tocqueville, Alexis de. (1984). *Democracy in America*. renewed by Richard D. Heffner. New York: Penguin Books.
- Veenstra, Gerry & Lomas, Jonathan. (1999). Home is Where the Governing Is: Social Capital and Regional Health Governance. *Health & Place* 5: 1-12.
- Verba, Sidney & Nie, Norman.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 Verba, Sidney, Kay Lehman Schlozman and Henry E. Brady. (1995). *Cambridge,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Massachusetts and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 Wellman, Barry. (1985). Domestic Work, Paid Work and Net Work. In Steve Duck & Daniel Perlman, eds. *Understanding Personal relationships*. 159-91. London: Sage.
- World Bank. (2001). Social capital and gender. <http://www.worldbank.org/wbp.scapital/sources/gender1.htm#maw>.
- Wright, John Paul, Gullen, Francis, T. & Miller, Jeremy T. (2001). Family social capital and delinquent involvemen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9: 1-9.